

# '야시장서 夜! 한잔' 목포 새 명물 생긴다

내년 자유시장에 들어서는 '남진 야시장'



광주 대인시장, 전주 한옥 야시장, 부산 부평강동 야시장 등 야(夜)시장이 전통시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시장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 개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50~60대 아줌마들의 로망인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딴 '남진 야시장'이 목포 자유시장에 들어선다.

목포시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가 특색있는 야시장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응모해 전국에서 인천, 부여, 광주, 제주 등과 함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은 윤진보 부시장의 숨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남다르다. 윤 부시장은 지난 8월 관공터 철거 끝에 가수 남진(본명 김남진) 씨로부터 명창·승낙서를 받았다. 또 안전행정부 방문해 국·과장들을 대상으로 목포시 선정의 당위성을 집요하게 설명한 데 이어 9월 열린 최종 심사에서는 직접 PPT(파워포인트) 설명에 나서는 등 열과 성을 다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13일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안행부로부터 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 예산난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 목포시민 74% "폐지·축소 반대"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이 예산난에 부딪힌 가운데 '사업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1793명, 일반 시민 800명, 여론형성층 107명 등 총 27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증가로 전면 폐지 ▲지원 대상 연령 상향 ▲지급 매수 축소 등 3개 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2254명(응답률 83.5%) 가운데 수혜자 1522명, 비수혜자 696명, 여론조사층 36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여가 3대7의 비율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10.4%, 70대 50.1%, 80대 이상 24.4%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반 시민들 중 수혜자의 74.4%가 '폐지 또는 축소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2.4%에 그쳤다. 비수혜자의 경우 찬성이 84.9%로 월등히 높았고 여론 형성층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포함, 반대 의견 제외)에선 ▲전면 폐지 830명 ▲연령 상향 869명 ▲지급 매수 축소 532명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연령 상향의 경우 70세가 54.9%로 가장 많았고 75세 34.6%, 80세 10.5% 순이었다. 지급 매수 축소는 연간 24매가 48.3%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34.7%)와 노인 회관 건립(24%)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단 여론 주도층에서는 목포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달해 이채를 띠었다.

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급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안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안 등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수립 이전까지 최종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 야시장이 개장될 수도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게 기본 구상"이라며 "시장 운영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색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먹거리·즐거움을 만들어줘 '목포하면 남진 야시장'이 떠오르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과제는=야시장은 관광객들이 목포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고 목포의 이미지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 하나의 관광 인프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은 "앞으로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포시가 관리를 철저히 해 환경위생 문제나 음식의 질, 가격의 저렴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북항 회타운이 들쭉거렸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를 도의시해결과는 관광객 유치에 찬물을 끼얹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자유시장 상인회 주상욱 회장은 "야시장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자유시장은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면서 "진짜 전통시장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게 특화시켜 나간다면 승산이 있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야시장이 들어설 자유시장은? 자유시장은 목포 시민들에게 '도깨비 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도깨비 시장의 원조는 지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목포역 인근에 위치해 무안 임성, 사창, 봉탄, 일로에서부터 함평에 이르기까지 열차를 이용해 싱싱한 농산물을 싣고 온 노점상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가 오전 10시 무렵이면 시장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데서 유래했다. 이후 삼학동 구 자유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1999년 현재의 자리에 동지를 틀었다.

현재 자유시장의 규모는 220개 점포에 상인회 소속 상인들만 260여명에 이르고 80여 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접근성이 쉽고 주차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도 80%를 넘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무료 배송 서비스'와 고객이 불만족할 땐 전액 환불하거나 교환해주는 '고객 불편신고 센터'도 자유시장만이 갖는 특징이다.

이 같은 외적 특·장점 외에 내적으로 시장 옥상에 각종 공연과 노래자랑 등을 펼칠 수 있는 '야의 무대'를 갖춰 문화향수를 달래주고 상인들의 신청곡을 들려주는 '도깨비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유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 안행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 전통시장 멋·맛 알리고 추억과 낭만의 명소로 육성

'문전성시' 사업에 선정돼 지난 2009년~2011년까지 국비·시비 등 총 12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46개 사업을 펼쳐 전통시장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해왔다.

◇야시장 추진 계획=야시장의 공식 명칭은 '저 푸른 초원위에 남과 함께 남진 야시장'이다. 시는 남도 야시장을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내수 활성화를 물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야간 관광명소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목포 5미(흙어, 민어, 낙지, 갈치, 꽃게) ▲별미 5선(썩골래, 코롬방 바케트, 팔방수, 뭇난이 빵, 시장 닭강정) 등 향토 명품을 활용해 취급 품목을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또 '항구도시'의 특색을 살린 옛 선술집을 연상시키는 1970년대 선술집 거리를 조성하고, 와인라테일 바, 막걸리 퓨전 바, 세계 맥주 바 등도 들어선다.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채화, 유화, 목공예품 등의 작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목포가 고향인 가수 남진을 컨셉



자유시장 옥상에 설치된 야의무대(위)와 도깨비 방송국.

으로 한 건축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1960~70년대 복고풍의 조명 설치하는 물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디스플레이로 시장의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5억원을 비롯해 도·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윤진보 부시장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서부터 마케팅 전략, 운영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에 일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3월까지 마스터플랜

◇야시장이 들어설 자유시장은? 자유시장은 목포 시민들에게 '도깨비 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도깨비 시장의 원조는 지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목포역 인근에 위치해 무안 임성, 사창, 봉탄, 일로에서부터 함평에 이르기까지 열차를 이용해 싱싱한 농산물을 싣고 온 노점상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가 오전 10시 무렵이면 시장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데서 유래했다. 이후 삼학동 구 자유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1999년 현재의 자리에 동지를 틀었다.

현재 자유시장의 규모는 220개 점포에 상인회 소속 상인들만 260여명에 이르고 80여 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접근성이 쉽고 주차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도 80%를 넘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무료 배송 서비스'와 고객이 불만족할 땐 전액 환불하거나 교환해주는 '고객 불편신고 센터'도 자유시장만이 갖는 특징이다.

이 같은 외적 특·장점 외에 내적으로 시장 옥상에 각종 공연과 노래자랑 등을 펼칠 수 있는 '야의 무대'를 갖춰 문화향수를 달래주고 상인들의 신청곡을 들려주는 '도깨비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유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야시장이 들어설 자유시장은? 자유시장은 목포 시민들에게 '도깨비 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도깨비 시장의 원조는 지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목포역 인근에 위치해 무안 임성, 사창, 봉탄, 일로에서부터 함평에 이르기까지 열차를 이용해 싱싱한 농산물을 싣고 온 노점상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가 오전 10시 무렵이면 시장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데서 유래했다. 이후 삼학동 구 자유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1999년 현재의 자리에 동지를 틀었다.

현재 자유시장의 규모는 220개 점포에 상인회 소속 상인들만 260여명에 이르고 80여 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접근성이 쉽고 주차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도 80%를 넘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무료 배송 서비스'와 고객이 불만족할 땐 전액 환불하거나 교환해주는 '고객 불편신고 센터'도 자유시장만이 갖는 특징이다.

이 같은 외적 특·장점 외에 내적으로 시장 옥상에 각종 공연과 노래자랑 등을 펼칠 수 있는 '야의 무대'를 갖춰 문화향수를 달래주고 상인들의 신청곡을 들려주는 '도깨비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유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낭만이 살아있는 항구도시 목포의 밤을 알릴 '남진 야시장'이 내년 하반기에 개장한다. '남진 야시장'이 들어설 자유시장의 동편 통로(왼쪽)와 서편 통로의 모습.



낭만이 살아있는 항구도시 목포의 밤을 알릴 '남진 야시장'이 내년 하반기에 개장한다. '남진 야시장'이 들어설 자유시장의 동편 통로(왼쪽)와 서편 통로의 모습.

## 목포교도소 정재조 교정위원

### '교정의 날' 국민포장 수상

목포교도소 정재조 교정위원(59·사진)이 28일 '제6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1997년 교정 참여인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17년 동안 수용자 교화상담, 불우수용자 지원 및 자매결연, 교화기자재 기증, 무연고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지원, 장애인 위로, 목포교도소 개청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수용자 및 직원자녀 장학금지원 사업 등 수용자 교화활동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

특히 교정협의회장을 8년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유명 인사들을 교정위원으로 추천·위촉하고, 교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외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건조기외 2종

원적외선 히터외 11종

대형 제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외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외 5종  
축사, 공장, 창고, 사무실, 학교, 강당, 전원주택 등

**무등산업** (062) 372-7585 (010) 3601-7701  
사·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

##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